

#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성공 개최 고삐 죄다

### 홍보대사 송가인 위촉...13개 유관기관 홍보·마케팅 맞손 전시·행사·관람 지원 등 협력...지역경제 성장동력 기대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이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홍보대사로 인기 가수 송가인씨를 위촉하고 13개 유관기관과 홍보·마케팅협약을 하는 등 성공개최를 위한 본격 담금질에 들어갔다. 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과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

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박홍률 목포시장, 김희수 진도군수, 이범현 한국예총 회장, 이병국 한국미술협회 수석부이사장, 지역 대학 총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송가인씨는 진도 출신 인기 트로트 가수로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인지도가 높고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고른 연령층에서 팬층이 두텁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릴레이 참여 등 전남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고향 발전에 대한 의지가 커 2021년에 이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송가인씨는 "2021년에 이어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홍보대사로 연속 선정돼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고향 발전을 위한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홍보·마케팅 협약식엔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주전시관 이 있고 특별전시관이 열리는 목포·진도·

해남·광양과 한국예총, 한국미술협회, 지역 대학 등 13개 기관장이 참여해 올해 수목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참여 기관은 전남도교육청, 한국예총, 한국미술협회, NH농협은행 전남본부, 광주은행, 목포대, 순천대, 목포해양대,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 등이다. 협약에 따라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주전시 개최지인 목포·진도, 수목특별전이 열리는 전남도립미술관과 해남 대흥사는 전시·홍보를 지원하고, 전

남도교육청, 한국예총, 지역 대학 등 유관기관은 행사 홍보, 관람 지원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지역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약기관과 상생 협력을 공고히 해 수목비엔날레가 한국 수목 전통의 맥을 잇고 지역경제 발전을 이끄는 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물드는 산, 멈춰선 물-송고한 조화 속에 서'라는 주제로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

1일까지 2개월 동안 목포·진도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린다. 사무국은 지난달 1일 입장권 사전 판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했으며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달 20일 서울 마로니에공원과 인사동 일원에서 불협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입장권 예매는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누리집, 티켓링크, 네이버 등을 통해 성인 7천원, 청소년 3천원, 어린이 2천원 등 3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김재정기자



해외파견 공직자 영상회의. 강기정 광주시장이 7일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해외파견 공직자들과 영상으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 뉴욕과 실리코밸리,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캐나다 밴쿠버 등 5개 도시 파견 공직자 6명이 참석했다. <광주시 제공>

## “무안군 정치적 여론몰이 중단 군공항 이전 관련 대화 나서라”

###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성명...광주시 지원책 요구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7일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 무안군은 지역 내 정치적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군민이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회는 이날 무안군 남악신도시 전문건설협회 회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군공항 이전 반대를 위한 무안군의 행정이 모든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행동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전남도회는 “정부·전남도는 무

안군민, 전남도민에게 민간·군공항 통합 건설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 지역간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거점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광주시는 특단의 이전 지역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수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맹목적인 찬성·반대는 지역 내 갈등을 부추긴다”며 “전남도와 무안군은 하루 빨리 이전 문제 협의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만들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재정기자

## 금호타이어 합평 이전 돌파구 찾을까

### 광주시·합평군·금호타이어, 추진상황 공유 규정·여건 맞는 방안 준비하면 시·군 지원

답보 상태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합평 이전 작업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과 이상익 합평군수, 채양기 금호타이어 관리총괄 사장 등은 지난 2일 광주 모처에서 만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광주시와 인접 전남 5개 시·군이 함께한 기후 위기 대응 상생협력 간담회에 앞서 차담회 형식의 만남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방향성을 설정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지자체와 사전 협상을 위해 금호타이어가 규정과 여건에 맞는 방안을 준비하면 광주시와 합평군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시설 노후화로 생산성이 낮은 광주공장을 합평 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

지만 광주시가 공장 이전 필수 절차인 공장부지 용도변경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전 작업은 사실상 중단 상태다. 회사 측은 광주공장 부지의 용도를 개발이익이 큰 상업용지로 바꿔 매각해야 이전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광주시는 특혜 등을 이유로 먼저 용도변경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올해 초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인 수 및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도 사업을 포기하고 지난 2월 컨소시엄을 해체했다. 미래에셋·현대건설·중흥토건·간서스자산운용으로 구성된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한 배경에는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낮은 사업성, 광주시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 주원인이라는 게 중론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만남을 가졌지만 결정된 것은 없었다”며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다시 한 번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상호 협력하면서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1974년에 건립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연간 1천600만본 이상의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설비 노후화로 인한 공장 가동률 저하 등의 문제를 겪어온 금호타이어는 2021년 합평 빛그린국가산업단지로 광주공장을 이전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부지·조성비용 전체 1천161억원 중 10%인 116억원을 납부했지만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박선경기자

## “의료환경 개선 건강권 확보해야”

### 전남새마을회 등 5개 단체, 전남 의대 설립 촉구

전남새마을회 등 5개 새마을단체는 7일 전남새마을회관에서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전남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생명·건강권 확보를 강력 요구했다. 전남지역 새마을단체는 이날 성명서에서 “전남은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대규모 석유화학·철강단지 등이 있어 산업재해 위험이 상존하는 등 의료 수요가 아주 높은 지역인

에도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지방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치료받을 권리 보장과 지역 공공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남도 의과대학’이 하루빨리 설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 현장에는 전남 17만 새마을 가족을 대표해 시·군 새마을 회장 등 30명이 참여했다. /김재정기자

남녘의 신선한 바닷바람, 풍성한 햇볕  
깨끗하고 맑은 물, 오염되지 않은 기름진 흙

엄격한 생산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한

생명영양 으뜸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전남쌀 대표브랜드

2023 대한민국  
베스트 신상품

명품  
농산물

광주매일신문  
경시 32주년